

소방헬기 격납고 문 개조문제 '도마에'

지방의회 중계식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대구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규용)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2006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펼쳤다.

이날 심사에서는 소방본부의 소방헬기 격납고 문 개조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권기일(동구2) 의원은 소방본부의 소방헬기 격납고 문 개조 4천 600만원 감액편성과 관련해 "전년도 구입한 러시아산인 달구벌 3호기의 높이가 격납고 문 높이와 같은 5.5m로 격납고에 입출고가 불가능해 출입문을 개조해야 하는데 격납고를 지을 때 미리 예견했어야 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66억여 원이나 들여 구입한 항공기가 격납고가 아닌 계류장에 장기간 주기, 안전관리문제예방을 위해 소방본부가 격납고 문 개조를

계획했으나 전문가 현장실사 결과 부분공사 불가결정이 나오자 개조비를 삭감편성한 것이다. 정순천(수성구1) 의원은 "격납고를 지을 때 각국의 소방헬기 높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비싸게 산 3호기를 방치해도 되느냐"고 질책했다.

김의식(서구1) 의원은 "감액사업 중 재편성 사업 중 민간경상경비보조가 많고 그 중에서도 출장비보조가 많은데 출장은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평가실적을 물었다. 양명모(북구2) 의원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용역비, 회의 개최(3회)비 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너무 의욕을 앞세우고 의회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양 의원은 또 건설방재국 소관 심사에서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 추진방안협의회 운영비 450만원을 편

성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이 회의가 건설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는 건설을 전제로 한 문제점 해결 모색지리로 해석하는 등 서로 상반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경호(비례) 의원은 기획관리실 소관심사에서 "고객만족행정 전문기관 컨설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금까지 시정혁신단 등 유사한 평가들이 있었는데 대구경제살리기와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해용(동구3) 의원은 행정관리국 소관심사에서 "공무원 봉급에 자기 개발비가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공무원 외국어능력향상교육 위탁교육비 4천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중지급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문정화기자 moonjh@idaegu.com